





서가풍경

## 우리가 삶을 배우고 익히는 곳

한국출판미술협회 강우현 회장의 서가

서가를 들여다 보면 한 사람이 걸어온 길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길이 책에만 있을까? 한국출판미술협회 강우현 회장(46)의 서가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강회장이 쓴 글씨와 나무에 조각한 이런 저런 글귀, 각종 캐릭터와 한지 위에 먹으로 그린 그림 등이 방안에 어지럽게 놓인 과자, 강아지 인형, 물감 등과 함께 어우러져 색다른 공간을 만든다. 자유분방한 그 공간의 모든 요소가 그에게는 제각각 길이다.

“이런 말하면 웃으시겠지만, 저는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책을 퍼냈지만, 책이란 다만 보편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은 책 밖에 있죠. 저는 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렇다고 하나 책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중국 서예에 대한 책, 일본 동화책, 한국 동화책 등과 함께 컴퓨터 그래픽과 일러스트레이션 관련서들, 강우현 회장이 등장하는 《기네스북》, 월간 《아버지와 가정》 등이 여기저기 꽂혀 있다. 언제나 그렇듯 서가에 꽂힌 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 가리킨다.

“한가지 책을 꼽는다면, 역시 《삼국지》입니다. 최근에는 아들 녀석이 보는 만화책으로 정신 없이 읽었습니다. 제갈공명도 죽는 것을 보니, 아나도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는 생각이 들더군요.”

《랑랑, 한빛탑에 오르다》《멀티 캐릭터 디자인》 등 그동안 15권이 넘는 동화책과 이론서를 냈지만, 가장 아끼는 책은 최근 자비로 한 정출판한 《엄마 엄마》다. 1999년 5월 15일, 어머니가 갑작스런 쇼크로 중환자실에 옮겨간 지 보름이 지난 뒤에 만든 책이다. 이 책은 그가 어디서 삶을 배웠는지 기록하고 있다. 바로 유년의 바랜 기억과 어머니의 사랑이다. —김연수 기자

